

진입 금지: 옥수수 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약칭, 진입 금지

크툴루의 부름(Call Of Cthulhu) 7판 룰 기준 w. 다죽자피자충

개요

※ NO ENTRY: DO NOT ENTER CORNFIELDS

번역: 진입 금지: 옥수수 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이상, 이하의 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KPC도 비슷한 호기심을 가졌는지 경고판과 당신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몇 걸음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될 일입니다.

"옆에 어차피 길도 나 있던데, 잠깐만 구경하자."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시나리오 정보

- 추천 인원: 타이만 (다인 개변 가능)
- 배경: 현대 미국 여름
- 예상 플레이 타임: X (테스트 플레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전투 X
- 추천 기능: 관찰
- KPC 난이도: ■■□□□
- PC 난이도: ■□□□□

추천 관계

- 함께 미국 여행을 갈 만한 사이
- 둘 사이에 몸이든 말이든 대화가 필요함 (R19 시나리오 아닙니다.)
- 갈등이 있는 관계

주의사항

본 시나리오는 크툴루의 부름 도서출판 초여명을 기반으로 작성된 비공식 2차 창작물입니다. 룰북 없는 키퍼링을 금지합니다.

- 개변은 자유이나 개변한 시나리오의 배포를 엄금합니다.
- **세션 카드 커미션을 허용합니다.**
- 해당 시나리오의 세션 카드 편집을 악의적이지 않은 범위에 한해서 허용합니다.
- 대화가 필요한 관계 또는 롤플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즐기실 수 있도록 작성한 롤플 위주 킬링타임용 시나리오입니다. 조사 구역이 거의 없으며 단일 엔딩입니다.

포스타입 링크(후기 폼 존재)

https://posty.pe/zt4ylb

진상

길을 잃었다는 것에, 옥수수밭에 들어가 무리와 떨어져 낙오되었다는 것에 어떤 신화 생물이 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정말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KP는 시나리오 시작 전 **리얼타임 1+[[1d3]] 시간**을 정해주세요. 주사위가 아닌 임의로 설정해도 됩니다. 해당 시간이 끝나거나 더 이상 둘 사이에 나눌 말이 없다면 바로 엔딩으로 흘러갑니다. 시간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PC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엔딩은 **하나의 결말**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일 시나리오 도중 죽거나 죽이는 등의 엔딩을 벗어나는 진행을 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창작 엔딩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저도 보여주시기를…)

KP 참고

스토리

BGM: September - Sparky deathcap

황량하고 넓은 옥수수밭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낮의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2차선 도로 양옆으로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초록 물결이 출렁입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오고,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마, 이 국도를 타고 지나가면 KPC의 친척이 머무는 집이 나온다고 했죠.
친척, 지인, 친구 등… 자유롭게 변경해 주세요. 아니면 머물 숙소가 있다고 해도 됩니다. 또한 이 전의 일정과 구경한 장소들에 대해서는 PL과 미리 정해도 되고, 아니면 무작정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타고 출발했다고 해도 됩니다.

차를 몰던 KPC는 잠깐 쉬어갈 겸 차를 세웁니다. 하긴, 아침부터 운전해 벌써 5시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태양이 당신들의 머리위에서 햇빛을 내리쬐고 있습니다. KPC는 잠시 의자 헤드에 머리를 기댔다가, 눈에 들어오는 옥수수 밭을 바라봅니다.

"사진 한 장 찍고 갈래?"

표지판도, 다른 자동차도 없는 작은 카운티 도로. 몸도 움직일 겸 내려 기념 사진이나 한장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옥수수는 생각보다 키가 컸습니다.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줄기들이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옆에 있는 경고판 하나.

※ NO ENTRY: DO NOT ENTER CORNFIELDS

번역: 진입 금지: 옥수수 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이상, 이하의 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KPC도 비슷한 호기심을 가졌는지 경고판과 당신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몇 걸음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될 일입니다.

"옆에 어차피 길도 나 있던데, 잠깐만 구경하자."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옥수수밭 안으로 들어간 후

옥수수 잎이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사각, 사각. 팔을 스칠 때마다 얇은 잎 끝이 살갗을 긁고 지나갑니다. 바깥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빽빽합니다. 초록 줄기들이 사방을 둘러싸며 벽처럼 서 있습니다.

열 걸음, 스무 걸음, 서른 걸음.

뒤를 돌아보면 분명 보여야 할 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세워둔 차도, 까만 아스팔트도.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초록. 초록색의 옥수수들뿐입니다.

"……어?"

KPC도 이상함을 눈치챈 듯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흙길을 따라 걸었을 뿐이고, 방향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몸을 한번 돌려 돌아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쪽이 들어온 길이었는지 선명하지 않습니다. 방금 스쳐 지나온 줄기들이 전부 똑같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더 깊이 들어온 걸까요. 한 발짝 되돌아가 보지만, 마주하는 풍경은 똑같습니다. 초록 줄기와 흔들리는 이파리, 머리 위로 잘린 하늘.

바람이 붑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옥수수가 몸을 기울입니다.

눈앞을 가리며 흔들리는 그것들의 소리가, 방금 전보다 조금 더 크게 들립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그제야 또렷해집니다.

발견 물건

리얼타임으로 20분이 지날 때마다 해당 표의 물건을 관찰 판정을 통해 공개합니다.
실패할 경우 재판정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시간은 **제한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지만, 통화권 이탈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녹슨 사냥용 나이프	마치 누군가 땅에 표시라도 남기듯 녹슨 사냥용 나이프가 땅에 꽂혀 있습니다. 손잡이는 나무인데 반쯤 썩어 있습니다. 칼날에는 말라붙은 흙과 이가 빠진 날이 눈에 띄네요. 최근에 떨어지기보단 나이를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이 칼의 주인은… 굳이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위로 날아가는 까마귀가 그를 데려갔을 테니까요.
운동화 한 짝	운동화 한 짝이 진흙에 반쯤 묻혀 있습니다. 사이즈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 안쪽에는 이니셜이 적혀 있지만 잉크가 번져 읽기 어렵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길을 헤매어 급히 뛰어다니다가 벗겨진 꼴인 것 같군요.
농사용 장갑	옥수수대에 걸린 두툼한 농사용 장갑이 보입니다. 손가락 부분이 찢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이 밭을 관리하던 사람의 것일까요?
허수아비의 떨어진 머리 부분	머리가 줄기들 사이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 천으로 뒤덮인 얼굴, 검은 실로 박음질된 눈알…. 허수아비의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살펴봐도 그것의 몸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종이 한 장이 바람을 타고 당신들 앞으로 날아옵니다. 옥수수밭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의 앞모습. 찍힌 날짜는 10년 전이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상태는 때를 탄 것을 제외하면 멀쩡합니다. 남자의 배경 뒤에 있는 허수아비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한 것은 착각일지…. 사진의 뒷면에 휘갈긴 글씨가 살짝 번진 채 적혀있습니다. It’s been a little over a month since I ended up here. The sun has risen and set more than thirty times now. I had a lot of food and water in my backpack, but now I don’t know how long the last leftovers will last. I still believe there’s a way out of this cornfield. I just haven’t found it yet. I miss my family so much. My love… wait for me. I’m coming home. 번역: 내가 여기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해가 뜨고 지는 횟수가 벌써 서른 번이 넘었다. 내 배낭에 음식과 물이 많았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이 얼마나 갈 지 모르겠어. 나는 여전히 이 옥수수밭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고 믿어. 아직 찾지 못했지만.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내 사랑… 기다려줘. 집에 갈게.
낡은 픽업트럭 열쇠	성공 실패 무관하게 획득.

	낡은 열쇠가 줄기 사이에 숨겨지듯 떨어져 있습니다. 포드 로고가 달린 키 링이 열쇠에 함께 매달려있습니다. 이건… 트럭 열쇠 같네요. 하지만 근처엔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추천 BGM

갈대밭 소리: https://youtu.be/5jlUVr6gkos

Subwoofer Lullaby - C418 [Aquaskye version]

Liminal Dream Spaces 86

S.T.A.Y. · Hans Zimmer

END. A Way Out

BGM: Hammock - Turn Away and Return

옥수수 줄기 사이로, 무언가 반짝거리며 햇빛을 반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커다란 트럭이 보입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쓴 낡은 픽업트럭. 반쯤 옥수수에 잠겨 있듯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손에 쥔 작은 열쇠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운전석 문에 열쇠를 끼워 넣고 돌리자, 철컥하고 잠금이 풀립니다. 엔진에 키를 꽂고 돌리는 순간, 짧은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드르륵—, 드르르륵————

거칠고 커다란 시동 소리가 울립니다. 바람이 멈춘 듯 조용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거세게 흔들리던 옥수수들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집니다. 갑시다. 여기서 떠나는 겁니다. 차를 몰아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질주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스팔트가 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을 벗어나, 다시 한적한 2차선 도로 위로 나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고,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합니다. 백미러에 비친 옥수수밭은 그저 평범한 농지일 뿐입니다.

KPC가 작게 웃습니다.

"우리가 좀 과민했던 걸까."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 안에 길은…

KPC 생존
PC 생존